

「서울도시연구」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2000~2009년 10년간의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송은하*

Contents Analysis of 「Seoul Studies」 for 10 Years(2000~2009)

Eun-Ha Song*

요약 :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도시연구」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과 특징,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도시연구」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창간호인 제1권 제1호부터 가장 최근 발행된 2009년 제10권 제4호에 게재된 328편의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서울도시연구」의 연구주제는 크게 '도시계획', '교통', '도시설계', '환경'으로 대별되고, 주로 서울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적 도시문제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서울도시연구」는 도시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주목하고 연구의 실천적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다. 셋째, 학술지적 특성으로, 공동연구가 월등히 활발하고 연구의 지속성 및 전문성이 있으며 우리 고유의 상황에 적합한 토착화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했을 때, 「서울도시연구」는 연구주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강화하고, 서울과 관련된 다른 지역으로도 연구 범위를 확대하며, 관(官)·학(學)·연(研)·산(産)을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전공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질적으로 성숙한' 학제적 공동연구를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 및 과제를 가진다.

주제어 : 도시연구, 도시연구사, 도시사, 도시학, 서울도시연구

ABSTRACT :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articles of 「Seoul Studies」 which were published for the past 10 years, using synthetic methodology. The study tries to identify trends,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research in the journal. The analysis shows that the journal has grown outstandingly both in quality and in volume during the decade. Total 328 articles were analyzed, from the first issue of the first volume in 2000 to fourth issue of tenth volume in 200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urban design, and environmental issues. These categories are related to diagnosing practical urban problems and searching for actual solutions for them. Second, 「Seoul Studies」 observes the issues regarding the city with "hardware approach" and emphasizes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Third,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s are popular, and most studies deal with regional circumstances. Also, the research in the journal has sustainability and specialization. The analysis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journal. Most of all, 「Seoul Studies」 should adopt the 'software approach' in terms of subjects. It also should diversify the scope of subjects into other regions related to or around Seoul and cities in other countries. Finally, the journal should involve interdisciplinary

* 문화경영연구원 대표(CEO, Culture Management Network, Inc.), E-mail: ceo@culture-bank.org, Tel: 02-3273-2289

research such as collaboration with the experts in civil engineering or researchers in other fields.

Key Words : urban study, urban study history, urban history, urbanology, Seoul Studies

I. 서론

99%와 100%는 단지 1% 차이가 아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단지 하루 차이가 아니다. 때로 과학적 논리보다 직관의 공감에 진리의 편으로 기울 때가 있다. 2010년은 『서울도시연구』가 창간 10년이 되는 해다. 10년이란 기간 역시 1년씩 쌓이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이 지난 2000년 쓰여진 『서울도시연구』의 창간사를 다시 펼쳐보아야 하는 이유이고, 지난 10년간 수백 편에 달하는 논문들을 우리 모두의 삶의 흔적이자 역사의 산물로 공인해야 하는 까닭이다.

1993년부터 발간해오던 『서울市政研究』를 개편해 창간한 것임을 감안하면, 『서울도시연구』는 17년의 역사를 가졌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 7년을 미취학 아동으로 보내다가 학교에 입학해 이름표를 단 지 10년, 이제 내년이면 어엿한 성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0년은 『서울도시연구』의 또 다른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창간사 첫머리에 나와 있듯이 ‘뉴 밀레니엄을 즈음하여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돌풍에 휩싸인 채 문명사적 전환을 실감’하며 『서울도시연구』를 창간할 당위성을 찾았던 당시의 포부와 다짐이 있었기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도시연구』를 창간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도시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서울도시연구』가 도시연구에 기여한 성과와

의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0년 창간호부터 2009년 제10권 제4호까지 총 32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이 논문들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현재 도시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와 도시연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향후 『서울도시연구』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장에서 『서울도시연구』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을 크게 6개 분야(연구자, 연구주제,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 지역, 참고문헌, 연구비 지원)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방법을, 3장에서는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된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0년을 고찰하고, 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혼합적 연구방법론을 통한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혼합적 방법론(mixed methods)을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혼합적 방법론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서 두 연구방법의 장점은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하는 연구방법이다.

Creswell and Clark(200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구방법론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사상과 관련

된다.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고 구성주의 등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혼합연구 방법론은 어떤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옳은가에 대해 직답을 하지 않고 절충주의적 입장에 있다. 방법론 자체보다는 연구 질문을 적절하게 하여 유용한 결과를 내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연구 혹은 그에 따른 특정 논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시연구』 10년의 다양한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원인 및 결과, 영향 등을 추론하여 향후 발전에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법론 즉, 혼합연구방법의 채택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도시연구』의 지난 10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개방형 질문과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연도별로 성장 추이는 어떠한가?’ 등의 폐쇄형 질문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의 결합시기 및 절차, 연구 질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명적 설계를 적용했다. 설명적 설계(Explanatory Design)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오은주, 2008), 먼저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을 추가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이나 이유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연구』 10년 고찰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광고학, 홍보학, 마케팅학, 행정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자아성찰적 연구 논문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자아성찰적 논문들이 학술지 창간 10주년, 20주년 또는 30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활발하

게 연구되었다는 점, 이들 연구가 내용 분석을 통해 학문과 실무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 등이 『서울도시연구』의 현재 시점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추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광고연구』 발행 10주년을 맞아 한상필(1998)은 창간호에서부터 약 10년간 『광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주제별 특성, 발행연도별 연구동향의 파악, 연구주제, 연구자의 특성, 연구논문의 평가, 연구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정리, 향후 연구되어야 할 주제 제안 등 7가지 목적에 따라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한상필(2008)은 『광고연구』 발행 20주년에다 분석유목을 8개 분야, 즉 주제 분류, 연구자 출신, 연구자 수, 연구논문의 종류, 참고문헌 유무, 연구방법, 통계분석기법, 논문의 길이로 나눈 후 1988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의 논문을 분석, 광고학의 트렌드와 특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마케팅학계에서도 자기성찰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용준 외(1999)는 1971~1998년의 마케팅 연구 30년을 정리하면서 논문을 연구의 주제, 연구의 범위, 연구목적별로 분석하여 주제의 편중현상과 선호되는 연구방법을 밝혔다. 그리고 홍보학 분야도 내용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조정열(2008)은 1997~2006년 『홍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 수, 논문 게재편수, 논문 분량,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유형 및 방법, 분석 방식, 통계유형, 인용문헌, 기타 등 10개의 분석유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는 시계열적 분석에 초점을 둔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신무섭(1996)은 1967년부터 1995년까지 30년간에 걸쳐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 접근방법, 연구목적,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고, 목진휴·박순애(2002)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한국정책학회보』에 기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목적, 분석방법과 기법, 자료수집방법과 자료의 종류, 분석단위, 정책단계에 따른 분류, 저자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대상 및 분석범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도시연구』 제1권부터 제10권까지 실린 모든 논문이다. 『서울도시연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2호씩, 2003년에는 3호를, 2004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는 매년 4호씩 발행하고 있다. 제1권에서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박사학위 논문 순으로, 제2권과 제3권에서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연구조사보고, 박사학위 논문 소개 순으로 구성하였고, 제4권에서는 연구논문, 박사학위 논문 소개, 제5권에서는 논문, 박사학위 논문 소개 순으로 게재하였다. 제6권부터 제8권까지는 논문 한 유형만을, 제9권과 제10권은 논문, 특집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권에서 제5권까지 요약본 형식으로 소개되었던 박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1권 제1호에서부터 제10권 제4호까지 총 328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3. 분석항목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특성 진단과 함께 향후 『서울도시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자아성찰적 논문들에서 주로 활용된 분석항목을 참조하여, 『서울도시연구』의 분석항목을 크게 6개 분야(연구자, 연구주제,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 지역, 참고문헌, 연구비 지원)로 분류하였다. 연구자 수, 참고문헌은 객관적인 항목이므로 계량적으로 분석했고 연구자 특성,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 지역, 연구비 지원 항목은 기존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유무를 결정했다(이석기, 2006). 연구주제는 『서울도시연구』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SDI로 표기)의 연구분야를 참조하여 분석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같이, 6개 분석항목을 이용한 양적 측면의 분석 토대 위에서 『서울도시연구』 창간의 3가지 목적인 '서울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 반영', '한국적 도시론 정립', '이론과 실천의 접목'에 있어 『서울도시연구』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의의와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했다.

1) 연구자 수 및 출신

『서울도시연구』의 질적 향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연구자 특성은 크게 공동연구 여부, 연구자의 직업, 연구자의 학문분야(전공)¹⁾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 학문분야(전공) 분류 기준은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연구자의 소속 학과와 전공 학문을, SDI,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속 연구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극히 일부이지만 간혹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논문 주제와 내용을 참조하여 코딩하였다.

2) 연구주제

주제 분류는 동일한 학제 내에서도 연구목적과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특히 도시연구의 경우 단일학문의 성격보다는 학제적 특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외 학술지를 참고해 보아도 대체로 해당 국가와

제 분류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서울도시연구』 발행기관인 SDI의 주요 연구분야를 참조하고 『서울도시연구』의 연구목적과 각 학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 1>과 같이 10개의 주제유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표 1> 연구주제 분류²⁾

주제		
1	도시경영	도시비전과 전략, 도시이미지, 도시경쟁력
		도시거버넌스와 행정
		공사, 공공기관, 위탁기관 평가 및 관리
		지역예산 계획 및 운영
2	산업경제	산업 및 지역경제 분석
3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전략
		지역균형발전, 뉴타운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 특성화지역 정비
		친환경 도시개발 및 재생
		도로, 상수도, 물류 등 기반시설 정비
		역사도시 및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
		공원녹지 친수공간, 공공시설
4	도시설계	도시계획/도시개발 제도 및 규제 연구
		도시건축물 공간구조 특성 연구
5	교통	도시공간 분석
6	환경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체계, 물류체계
		보행, 교통안전
7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폐자원 활용,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차단, 정화, 수질관리
8	문화관광	사회복지, 가족복지
		교육, 평생학습, 인적자원 개발, 교육지원사업
9	도시정보	문화예술정책
		축제관광정책
10	기타	디지털도시, 정보화 사회, ITS,
		디지털미디어 공간

지역 특성에 따른 주제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서울의 특수성이 반영된 『서울도시연구』의 주

3)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연구유형은 방법론을 기준으로 크게 정성적 연구(개념적 연구방법)와 정량적 연구(실증적 연구방법) 그리고 이들을 함께 활용한 혼합연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였다.³⁾

4) 연구대상 지역

『서울도시연구』는 발행기관의 특성상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대표 도시연구 학술지,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연구대상을 외국 및 국내 지역별로 분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지역별 분류는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1차 코딩을 거쳐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가장 많이 연구된 지역을 다시 정리하여 재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5)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질적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므로, 각 논문에 활용된 참고문헌 수, 국내문헌과 해외문헌 비중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분석했으며, 참고문헌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지, 학회 세미나/토론회/발표회 자료집,

2) SDI 연구조직 및 연구분야(<http://www.sdi.re.kr/organization>) 참고

3) 연구유형 및 방법론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목적별·주제별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방법론 자체에 대해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가장 일반적인 분류기준을 채택하였다.

단행본, 정기간행물(신문/잡지), 학위논문, 정부 및 공공기관 문서, 기업 및 민간기관 문서, 웹자료,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했다.

6) 연구비 지원

도시연구의 필요성 및 사회적 관심 정도의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기금 지원 유무를 논문 별로 조사하여 파악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비 지원 출처를 밝힌 논문만을 연구비 지원 사례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게재논문 수량 추이

지난 10년간 연도별 게재논문 편수는 초기에 비해 약 2~4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3호만 발행되던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5~20편, 매년 4호가 발행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는 연간 37~57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한편 호별 평균 논문편수를 비교하면 2003년까지는 호당 약 7편,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호당 약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게재논문 수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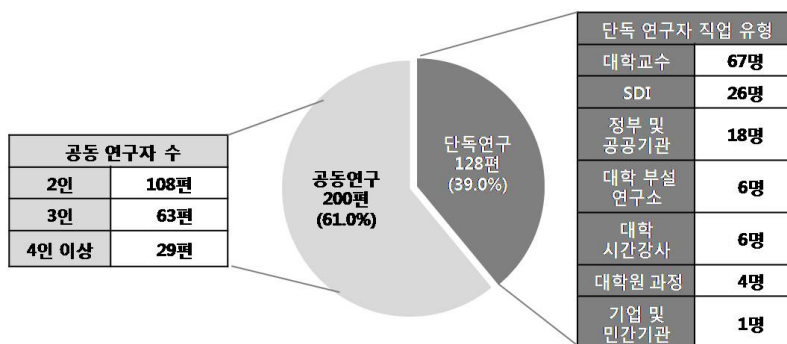
단위: 건

발행연도(호)	1호	2호	3호	4호	전체	호별 평균 논문 수
2000년(1권)	7	8			15	7.5
2001년(2권)	9	6			15	7.5
2002년(3권)	6	8			14	7.0
2003년(4권)	7	6	7		20	6.7
2004년(5권)	10	9	9	9	37	9.3
2005년(6권)	10	10	11	12	43	10.8
2006년(7권)	9	8	13	7	37	9.3
2007년(8권)	8	16	12	13	49	12.3
2008년(9권)	8	9	11	13	41	10.3
2009년(10권)	15	12	15	15	57	14.3
전체	328					9.5

2. 연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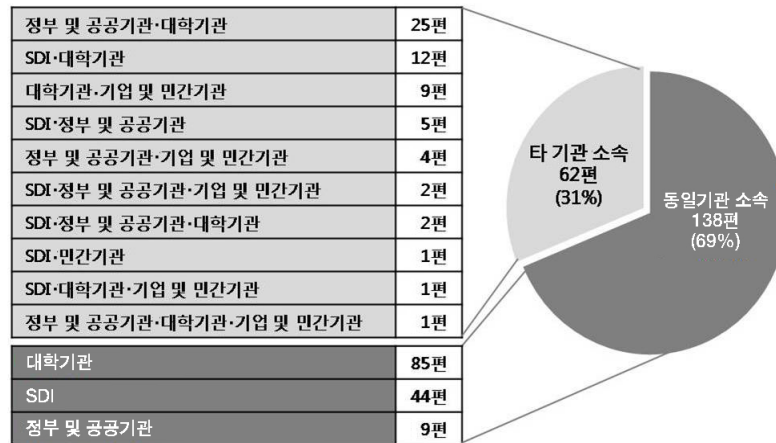
『서울도시연구』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 수와 연구자 출신(직업, 학문분야)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난 10년

<표 3> 공동 연구자 수와 단독 연구자 직업 유형



4) 2000~2004년까지 게재되었던 박사학위논문 소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 공동연구 참여자 출신 현황



간 『서울도시연구』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664명으로,⁵⁾ 연구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단독연구의 비중이 39.0%인 데 반해 2인 이상의 공동연구 비중은 6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 결과는 『서울도시연구』가 ‘도시연구’라는 복합학문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많은 연구자의 참여와 활발한 상호교류를 독려 내지는 환영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증거로, 여타 학술지와 비교해 볼 때⁶⁾ 『서울도시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성과였다고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연구자의 출신을 파악함으로써 교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연구자의 직업은 단독연구의 경우에는 대학교수(52.3%), SDI 소속 연구원(20.3%),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14.1%)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공동연구는 동일기관 소속원 간의 공동연구 비

중(69%)이 타 기관 소속원 간의 공동연구 비중(31%)보다 높았다(〈표 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학술지와 비교하면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교류 비중은 『서울도시연구』가 확연히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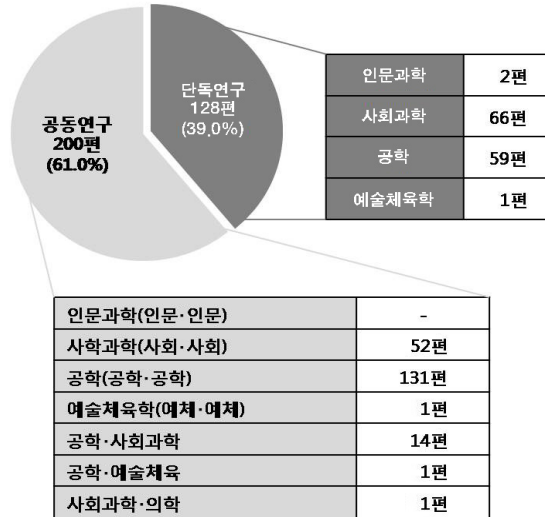
한편 전공별로 보면 공동연구와 단독연구 모두 공학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문과학이나 예술체육학 등의 전공자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공동연구의 경우, 타 학문과의 교류보다는 동종 분야 내의 교류, 즉 공학과 공학(65.5%), 사회과학과 사회과학(26.0%)의 교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5〉 참조).

SDI 소속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만을 따로 살펴 보면, 지난 10년간 게재논문 편수는 93편, 이 중 단독연구 26편, 동일 기관 내 공동연구 44편, 타 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는 23편이다. 전체

5)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한 명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 복수로 코딩하였다(참고로 『서울도시연구』는 중복 게재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대표적 예로, 김갑수는 10년간 10편의 연구에 참여했고, 김경배와 김태호는 8편, 김운수와 이청원, 황기연은 7편, 양재섭과 원제무, 김지옥은 5편, 구자훈과 김홍순, 박창수, 유기영, 이상경, 이성우, 이신해, 이종규, 정숙영, 최승담은 4편의 연구에 참여했고, 3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18명, 2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5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도시연구』의 특징적 현상이지만 아쉽게도 다른 학술지의 중복게재 연구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6)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홍보학연구』의 10년간 연구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독연구가 66.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4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열, 2008).

〈표 5〉 연구자 학문분야(전공)



논문 중 공동연구 논문만을 100%로 가정하면 그 중 33.5%의 공동연구에 SDI 소속 연구자가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서울도시연구』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동연구 및 많은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를 추동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SDI 소속 연구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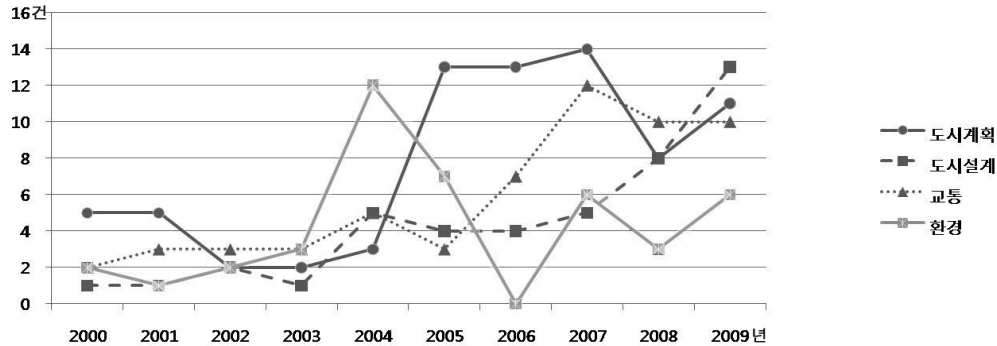
연구주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주제는 도시계획(76편, 23.2%), 교통(58편, 17.7%), 도시설계(44편, 13.3%), 환경(42편, 12.8%)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들 4가지 주제는 연도별로 집중되는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동시에 『서울도시연구』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연구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주제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의 심미성과 편리성과 직결되는 도시설계 연구의 증가이다. 이는 세계적인 도시트렌드와도 상통하는 결과이므로, 『서울도시연구』가 도시연구 전반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주제별 연구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도시연구』가 전반적으로 위의 주요 4가지 주제와 같은 도시의 하드웨어 측면의 주제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간 초기에 비해 최근 들어 도시경영,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도시연구』가 원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향점을 비교적 잘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주제별 연구 추세



단위: 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도시경영	3(20.0)	4(26.7)	2(14.3)	6(30.0)	2 (5.4)	5(11.6)	5(13.5)	5(10.2)	1 (2.4)	5 (8.8)	38(11.6)
산업경제	1 (6.7)	0 (0)	0 (0)	0 (0)	2 (5.4)	3 (7.0)	1 (2.7)	2 (4.1)	0 (0)	1 (1.8)	10 (3.0)
도시계획	5(33.3)	5(33.3)	2(14.3)	2(10.0)	3 (8.1)	13(30.2)	13(35.1)	14(28.6)	8(19.5)	11(19.3)	76(23.2)
도시설계	1 (6.7)	1 (6.7)	2(14.3)	1 (5.0)	5(13.5)	4 (9.3)	4(10.8)	5(10.2)	8(19.5)	13(22.8)	44(13.4)
교통	2(13.3)	3(20.0)	3(21.4)	3(15.0)	5(13.5)	3 (7.0)	7(18.9)	12(24.5)	10(24.4)	10(17.5)	58(17.7)
환경	2(13.3)	1 (6.7)	2(14.3)	3(15.0)	12(32.4)	7(16.3)	0 (0)	6(12.2)	3 (7.3)	6(10.5)	42(12.8)
사회복지	0 (0)	0 (0)	1 (7.1)	1 (5.0)	3 (8.1)	0 (0)	3 (8.1)	2 (4.1)	4 (9.8)	8(14.0)	22 (6.7)
문화관광	0 (0)	0 (0)	2(14.3)	2(10.0)	1 (2.7)	3 (7.0)	2 (5.4)	2 (4.1)	6(14.6)	0 (0)	18 (5.5)
도시정보	1 (6.7)	0 (0)	0 (0)	0 (0)	3 (8.1)	3 (7.0)	1 (2.7)	0 (0)	0 (0)	1 (1.8)	9 (2.7)
기타	0 (0)	1 (6.7)	0 (0)	2(10.0)	1 (2.7)	2 (4.7)	1 (2.7)	1 (2.0)	1 (2.4)	2 (3.5)	11 (3.4)
전체	15(100)	15(100)	14(100)	20(100)	37 (100)	43 (100)	37 (100)	49(100)	41(100)	57(100)	328 (100)

4.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지난 10년간 『서울도시연구』에 발표된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정량적 연구방법(225편, 68.6%)을 정성적 연구(103편, 31.4%)보다 더 많이 활용하였다. 창간호가 발표된 200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량적 연구 비중이 정성적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서울도시연구』가 실증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조사(42.1%)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설문조사(17.4%), 사례연구(15.2%), 문헌연구(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방법론은 10% 이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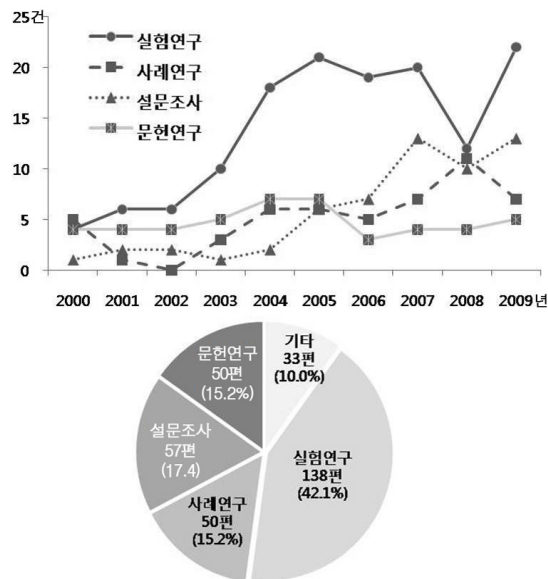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의 경우 발행 초기에 비해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여 2008년에는 24.4%까지 비중이 상승하였다. 그런데 문헌연구는 연간 활용 비중 면에서 초기에 비해 확연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험 연구는 연도에 상관없이 비중이 월등히 높아 도시 연구방법론 중 가장 애용되는 대표적 연구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한편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설계, 교통, 환경 관련 주제는 주로 실험연구방법을,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관련 주제는 설문조사가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연구주제별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현황

단위: 건(%)

주제	연구유형		연구방법								분석 논문 수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	문헌 연구	사례 연구	관찰/ 면접	설문 조사	실험 연구	실사 연구	2개 이상 (정성적/정량적) 연구방법	혼합 연구	
도시경영	17(44.7)	21(55.3)	9(23.7)	7(18.4)	0 (0)	6(15.8)	12(31.6)	0 (0)	1(2.6)	3 (7.9)	38
산업경제	1(10.0)	9(90.0)	1(10.0)	0 (0)	0 (0)	0 (0)	9(90.0)	0 (0)	0 (0)	0 (0)	10
도시계획	38(50.0)	38(50.0)	16(21.1)	21(27.6)	1(1.3)	11(14.5)	21(27.6)	0 (0)	4(5.3)	2 (2.6)	76
도시설계	10(22.7)	34(77.3)	4 (9.1)	6(13.6)	0 (0)	9(20.5)	23(52.3)	0 (0)	1(2.3)	1 (2.3)	44
교통	8(13.8)	50(86.2)	4 (6.9)	4 (6.9)	0 (0)	9(15.5)	33(56.9)	2 (3.4)	3(5.2)	3 (5.2)	58
환경	6(14.3)	36(85.7)	2 (4.8)	4 (9.5)	0 (0)	4 (9.5)	24(57.1)	6(14.3)	2(4.8)	0 (0)	42
사회복지	8(36.4)	14(63.6)	5(22.7)	2 (9.1)	1(4.5)	9(40.9)	5(22.7)	0 (0)	0 (0)	0 (0)	22
문화관광	10(55.6)	8(44.4)	7(38.9)	3(16.7)	0 (0)	7(38.9)	1 (5.6)	0 (0)	0 (0)	0 (0)	18
도시정보	1(11.1)	8(88.9)	0 (0)	1(11.1)	0 (0)	1(11.1)	5(55.6)	0 (0)	0 (0)	2(22.2)	9
기타	4(36.4)	7(63.6)	2(18.2)	2(18.2)	0 (0)	1 (9.1)	5(45.5)	0 (0)	0 (0)	1 (9.1)	11



〈그림 1〉 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 및 전체 비중

5. 연구지역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울도시연구』의 연구대상이 서울인 것은 당연하고도 확실하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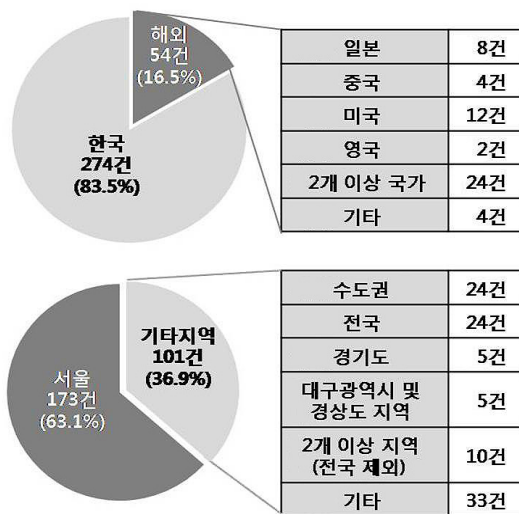
역설적으로, 서울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연관을 가지는 다른 지역공간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종합적으로 서울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는 수도이고 『서울도시연구』 발행기관인 SDI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적 모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에 더더욱 이런 대표성과 상징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도시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만으로 한정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는 국가별, 국내 지역별로 『서울도시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83.5%)와 2개 이상의 국가를 동시에 연구한 경우(7.3%)를 제외하면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검토·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의 양 및 접근성 측면에서의 연구자의 편리성 때문일 것이다.

국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상대로 서울(173편)과 수도권 연구(24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어느 학문분야든 간에 특정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편중된 연구경향을 보이는 현상은 도입 초기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표 8〉 참조).⁷⁾

〈표 8〉 연구지역별 논문편수



6. 참고문헌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평균 23.6건으로 초기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언어유형별로는 국내문헌(평균 12.2건)과 해외문헌(평균 11.4건)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의 주요 유형은 학술지/논문집과 정부 및 공공기관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 문서 활용비중이 높은 것 역시 『서울도시연구』의 연구대상 및 분야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 공공 문

서의 경우 학술적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참고문헌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7. 연구비 지원

지난 10년간 『서울도시연구』 발표 논문 중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는 49편(14.9%)이었고 주로 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원 및 정부 지원 형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금 지원 여부는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향후 연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도시연구』를 발행하는 SDI가 공공기관이고, 지난 10년간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중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이 약 46%에 달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논문화한 경우를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연구비 지원 여부가 다른 학술지와 같은 비중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시사점

2000년 3월 『서울도시연구』 창간사에는 『서울도시연구』가 “거대도시 서울을 비추는 시정연구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그 구체적인 기여의 방향이자 목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도시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서울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구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의 실

7) 예를 들어 해외 도시연구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는 영국과 서유럽 일색이었던 편집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적의 편집진을 임명하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격려하고 있다(Seekings and Keil, 2009).

마리를 찾아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 및 범지구적 도시문제의 진단과 처방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 도시 관련 학계에 만연한 정체성 없는 학문행위에 대한 일침으로 고유한 토착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는 거대도시 서울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도록 접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창간 목적 하에 지난 10년간 『서울도시연구』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찰함으로써 향후 『서울도시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첫째 목적인 서울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연구와 둘째 목적인 고유한 토착이론 개발은 그동안 『서울도시연구』가 무엇을 연구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서울도시연구』는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복지학, 환경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조경학, 지리학, 문화예술학 등 다른 학술지에 비해 매우 포괄적인 학문분야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이유는 바로 '도시'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도시란 인간사회의 기반이 되는 모든 제도적, 생태환경적, 경제적, 물질적 요소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도메인이다.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서울도시연구』는 '도시'를 닮아 있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처럼 『서울도시연구』는 한국적 도시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를 해 온 점은 틀림이 없으나, 서울이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분석결과에 드러나듯이, 연구주제의 비중이 하드웨어적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행정의 과학화'를 표방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목적과 방침, 그

리고 『서울도시연구』가 사회과학 학술지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 편중은 그 학술적 전문성 측면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울도시연구』가 가지는 우리나라의 선도적 도시 관련 학술지로서의 영향력과 의의를 고려하면 도시연구에 있어 과학적·효율적·합리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리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관점이 도외시될 경우, '숙박'과 '주거', '집'과 '가정', '뿌리'와 '입지' 등의 의미론적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서울도시연구』가 '도시'로서의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서울'을 연구하면서 행정구역상의 테두리만으로 연구의 경계를 한정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우리에게 서울은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 측면에서도 '서울'의 문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연구의 궁극적 대상인 서울 시민은 '서울에 사는 시민'을 넘어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고 간주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도시사 연구 성과를 보면 도시의 인구변동, 인프라망 확충, 도시행정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긴장관계, 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도시와 농촌의 긴장관계에 대한 연구, 도시화와 경제발전과정 자체와 이에 영향을 미친 정치권력의 문제에 대한 연구, 도시의 다양한 계급·계층의 주거지, 조직화,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전통적 가치관이 도시화 과정에서 변동되는 과정 등이 기본 테마임을 알 수 있다(민유기, 2007).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 숫자와 단면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특히 도시연구에는 이런 나침반, 이런 거울을 통한 자기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 역시 살아 있는 존재인 까닭이다. 『서울도시연구』가 도시에 대한 즉답만을 요구받는다면 역설적으로 방부 처리된 도시, 화석화된 혹은 박제된 도시 연구에 매진하게 될지도 모른다. 실천론적 강박이 지나쳐 ‘문제’ 자체를 의심할 기회를 가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만 집착하는 탓에 빠지지 않도록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시연구』의 셋째 목적인 이론과 실천의 접목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도시연구』가 관(官)·산(産)·학(學)·연(研)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연구자들이 『서울도시연구』에 참여해 왔는지와 실사구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자 특성에서 보았듯이, 공동연구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로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다는 것은 『서울도시연구』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징후라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학문적 공지를 내걸고 官·學·研이 함께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知的으로 열린 광장을 마련하였다. 서울을 연구하는 도시학자, 연구자, 실무자, 이론가, 시민운동가들이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총본산으로서 새로운 地平을 열겠다”(권원용, 2000)는 창간 당시의 다짐과 각오가 이런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도시연구』의 학자적·학술적·공공적 자세는 본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전체 논문 중 약 30%에 달하는 연구에 『서울도시연구』 발행기관인 SDI 소속 연구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연구의 전문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혹은 오히려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기관 외 연구자에의 개방성을 해치고 관점의 편향성이 우려되므로 향후 역동적 연구 추이에 둔감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연구내용이 답보(踏步)하리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⁸⁾ 먼저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SDI소속 연구자 중심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향점이 있는데, 하나는 관(官)·학(學)·연(研)에 산(産)이 더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공공사업에 대한 연구가 많으므로 연구자 중 대학과 정부, 공공기관 연구원, 공무원 등의 비중이 높지만, 도시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민간기업 및 민간기관 전문가의 동참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학·연·산 간의 교류를 지향하면 학문적 성과는 물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지향은 연구자 전공의 다양성, 즉 서로 다른 전공자의 교차학문적·다학문적·간학문적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는 지점이다.⁹⁾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서로 다른 전공자가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표적 경우로, 도시공학자와 행정학자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황기연·나태준,

8) 이 질문이 현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 부분은 더 강화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향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9) 가령, 기호학자 김성도(2008: 126)의 글에서 보듯이 “기호학적 시각, 즉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작용의 심층 원리를 해명한다는 시각에서 도시는 무엇보다 공간의 문제 설정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도시는 무엇보다 사회·정치·문화·경제·역사 차원에서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시민들의 밀집주거지역이며 응집체이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도시기호학적 공간문제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서울도시연구』 연구주제 유목 중 ‘미래 공간 연구’, ‘도시공간 분석’ 등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2005)과 디지털학자와 정치학자의 “로컬 거버넌스능력 강화수단으로서의 공론조사”(김원용·정효명, 2003)를 들 수 있는데, 도시연구에서 특히 이런 시도는 바람직하며 앞으로 더욱 독려되어야 할 방향임에는 부연이 필요 없다. 이런 지향이 가시화되면 연구의 전문성·지속성·다양성이 더 강화될 것이며 기관 외 연구자에의 개방성 역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될 수 있고,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기실 도시연구의 성숙은 질적 연구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질적인 것’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균형 감각과 함께 학자들 간의 연구와 토론을 장려하는 방안 강구 등 여러 학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긴요한데(윤건수, 2005), 이것은 ‘도시연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도시연구』는 지난 10년간 SDI 소속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의 활성화라는 성과를 보인 바 있으므로 이러한 다의적·다차원적 의도에서 관·학·연·산의 질적 공동연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서울도시연구』와 서울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됨으로써 도시문제 진단과 처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서울도시연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도시연구』의 논문들은 제도 및 정책적 측면, 도시민의 현실적 삶의 질 향상 측면, 당면 문제 진단 측면 등에서 ‘실천적 이론’을 추동하는 데 역할을 해왔음이 명백해 보인다.

한편, ‘이론적 실천’은 『서울도시연구』의 향후 10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실천적 이론을 위해서는 이론을 보는 관점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실

천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이론이 재개념화되어야 한다(김상욱, 2005)는 명제 앞에서, 지난 10년간 『서울도시연구』는 “왜”라는 질문에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론적 사유란 곧 반성과 성찰의 사유에 다름 아니다. 자명하다고 믿는 인식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라는 도구적 실천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본질’과 ‘존재’에 대하여 끊임 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의 핵이자 이론적 실천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즉효적인 대답에만 몰두하다보면 이론의 태생적 약점인 공허함만 부각되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이론의 필요성을 왜곡하거나 폐기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이론의 공허함은 ‘이론적 실천’과 ‘실천적 이론’의 선순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서울도시연구』가 이제는 ‘서울’과 ‘도시’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함께,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이다.

IV. 결론

『서울도시연구』는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2000년 창간호인 제1권 제1호부터 가장 최근 발행된 2009년 제10권 제4호까지 게재된 328편의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도시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는 크게 ‘도시계획’, ‘교통’, ‘도시설계’,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4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연구주제가 교통과 도시설계 분야임을 고려

하면 『서울도시연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현실적 도시문제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울도시연구』의 학술지적 성격을 살펴보면, 실증적 연구를 지향하고 도시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주목하며 연구의 실천적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다. 타 학술지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공동연구가 월등히 활발한 점, 연구의 지속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점,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과 실질적인 기여를 추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했을 때, 『서울도시연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연구주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강화하고 서울과 관련된 다른 지역 및 세계 각 도시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산업 전문가를 비롯하여 보다 다양한 전공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제적 연구를 도모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와 도시현상은 인간의 삶과 그 궤를 같이 하므로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여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 인문적 표현을 빌리면, 도시는 ‘세계의 삶’이고 ‘의미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모종의 담론’이기에 ‘도시는 도시민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도시에 대해 얘기’한다.¹⁰⁾ 이 인문적 지평으로 보면 『서울도시연구』의 ‘서울도시연구’ 10년은 도시에 대한 이론적 연구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실천적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서울도시연구』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게재되었던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

는 『서울도시연구』, 나아가 우리나라 도시연구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서울도시연구』는 지난 10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도시문제 진단과 처방, 실천적 이론 정립과 도시 공공성 추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서울도시연구』가 이론 ‘실천적 이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은 ‘이론적 실천’과 ‘실천적 이론’의 선순환적 연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간을 둘러싼 요소들이 합종연횡으로 맞물리고 얹히고설켜 모든 것의 역사로 회귀하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도시답게’ 연구하고, 공공선을 우선하는 공생적 태도, 학문간·학자 간 경계를 과감히 초월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며 실천적인 자세, 낯이 심각해지는 도시문제에 치유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적 진정성과 성찰을 담보한다면, 『서울도시연구』의 앞으로의 10년도 우리 도시연구사에 큰 획을 긋는 요람이자 보고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 권원용, 2000, “창간사: 거대도시 서울을 비추는 시정연구의 거울이 되기를...”, 『서울도시연구』, 제1권 제1호.
 김덕현, 2008, “장소와 장소 상실, 그리고 지리적 감수성”, 『배달말』, 43.
 김동윤, 2007, “기호와 21세기 문화: 해석의 기호학에서 생산의 기호학으로: 도시 공간에 관한 인문적 담론 구성 시론 1”, 『기호학연구』, 22권 단일호.
 김상구, 2005,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 『정부학연구』, 11권 1호.
 김상욱, 2005,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 문학 교사를 위한 제언”, 『문학교육학』, 18권 단일호: 352.

10) 도시인문학자인 김동윤(2007)의 글에는 서양 인문학자들의 도시에 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메를로 퐁티는 도시를 ‘세계의 삶’로, 롤랑 바르트는 ‘도시는 담론’이라 했으며, 또한 빅토르 위고의 표현을 빌려 도시는 ‘에크리튀르’이고 그 안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 사용자는 모종의 독자이다.”

- 김성도, 2008, “도시 공간의 인문적 조건”, 『공간』, 제42권 제8호.
- 김영진, 2005, “우리 사유에 대한 성찰”, 『시인세계』, 통권 제11호.
- 김용준·임양환·박세환·백수경·정상호, 1999, “한국마케팅 연구 논문의 분류와 분석: 1971~1998”, 『마케팅연구』, 14권 2호: 147~173.
- 김원용·정효명, 2003, “로컬 거버넌스능력 강화수단으로서의 공론조사”,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3호.
- 김인·박수진, 2006, 『도시해석』, 푸른길.
- 김창석, 2009,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서울경제』, 2009년 7월호.
- 김홍순, 200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4호.
-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1호: 319~332.
- 민유기, 2007, “한국 도시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 『사총』, 64권.
- 박삼욱, 2006, “지식정보사회의 신경제공간과 지리학 연구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6호.
- 박진빈, 2007, “미국 도시사 연구의 특성과 논점”, 『사총』, 64권.
- 백기복·신제구·차동욱, 1998, “한국 경영학계의 리더십 연구 30년: 문헌 검증 및 비판”, 『경영학연구』, 제27권 제1호.
- 신무섭,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과 과제: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57~79.
- 양주동, 1957, “勉學의 書”, 『高風』, 2(1957. 10).
- 양해립, 2009, “과학기술과 새로운 공간의 창출”, 『철학연구』, 제109집.
- 오은주, 2008, “혼합연구방법론: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교차시키기”, 『국토』, 통권 315호.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언”,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 이기봉, 2005, “도시와 도시화: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적 검토”, 『문화역사지리』, 제17권 제2호.
- 이기형, 2008, “문화연구와 공간”, 『언론과 사회』, 16권 3호.
- 이상호, 2007,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행정논총』, 45권 2호.
- 이석기, 2006, “광고학연구의 지난 10년: 창간호부터 1999년 겨울호까지의 내용분석”, 『광고학연구』, 11권 3호.
- 이우성·정성관·박경훈·유주한·김경태, 200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도시평가”, 『환경영향평가』, 제16권 제6호.
- 이종용, 2007,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 『지리학연구』, 제41권 제3호.
- 장영희, 2009, “도시재정비사업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특집.
- 정성호, 2001, “행정학의 비주류 영역탐색”, 『정부학연구』, 7권 2호.
- 조정열, 2008, “『홍보학연구』의 홍보학 연구: 연구사 10년, 1997~2006”, 『홍보학연구』, 제12-2호.
- 최재현, 2006, “세계화 시대의 도시변화 이해를 위한 개념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 한상필, 1998, “광고연구 10년 내용분석”, 『광고연구』, 41호: 71~94.
- _____, 2008, “광고연구 20년 내용분석”, 『광고연구』, 겨울호, 440~457.
- 황기연·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ition),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and Clark, V. L. Plano,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 edition),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orton, Linda P., and Lin, Li-Yun, 1995, “Contents and Citation Analyses of Public Relation Review”, *Public Relation Review*, 21(4): 337~349.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Sallot, Lyon, Lisa J., Acosta-Alzuru, Carolina, and Jones, Karyn Ogata, 2003, “From Aardvark to Zebra: A new millennium analysis of theory development in public relations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 Public Relations Research*, 15(1): 27~90. http://lui.iklc.co.kr/neo__sub/data__01.asp
- Seekings, J. and Keil, R., 2009,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An Editorial Stat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ume 33, Issue 2: 1~10. <http://www.auric.or.kr/>
- Tashakkori, A. and Teddlie, C., 2003(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http://www.kocer.re.kr/>
- <http://www.krihs.re.kr/>
-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journal>
- <http://www.sdi.re.kr/organization>
- <http://www.sdi.re.kr/periodical/research.asp>
- <http://www.tandf.co.uk/journals/>